

성인 건강 검진자에서 위식도역류 증상 및 역류성 식도염의 빈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송성욱 · 백광호 · 윤광희 · 김성중 · 김진봉 · 김동준 · 최현희 · 김영목 · 김병호 · 양하나

목적 : 위식도 역류 증상은 서양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체계적인 연구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강원도 지역에서의 건강 검진자를 대상으로 위식도역류 증상의 빈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내시경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은 1,01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남자가 528명(평균연령 46.5세, 20-83세), 여자가 484명(평균연령 45.7세, 22-78세)이었다. 모든 대상자는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슴쓰림 혹은 산역류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위식도 역류 질환군, 위산역류의 전형적 증상은 있으나 빈도가 일주일에 한 번 미만은 전형적 증상군, 소화기 질환의 증상은 있으나 위산역류의 증상이 없는 경우는 비전형적 증상군, 그리고 무증상군으로 나누어 내시경 검사 결과를 각각 비교하였다. **결과** : 위식도 역류 질환군, 전형적인 증상군, 비전형적인 증상군, 무증상군은 각각 76명(7.5%), 98명(9.8%), 280명(27.7%), 558명(55.1%)이었고 이 중에서 내시경으로 확인된 역류성 식도염은 각각 33명(43%), 33명(33%), 88명(31%), 99명(17%)이었다. 비전형적인 증상군에서 소화기 증상의 빈도는 속쓰림(14.3%), 이물감(6.6%), 흉통(4.0%), 기침(1.8%), 권복소리(1.0%) 순이었다. 위식도 역류 질환군, 전형적인 증상군, 비전형적인 증상군에서 식도염의 빈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이들 세 군과 무증상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또한 전형적인 증상군과 비전형적인 증상군간의 식도염의 빈도차이는 없었다. **결론** : 증상군과 무증상군에서 식도염의 빈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위식도 역류 질환군, 전형적인 증상군, 비전형적인 증상군에서 식도염의 빈도는 차이가 없어 전형적인 위산 역류 증상으로 식도염을 예측할 수는 없었다.

한국인 베체트병의 식도 침범 발생 빈도와 임상양상: 단일 기관 경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소화기병 연구소

*이승우 · 천재희 · 김병창 · 김지현 · 손명균 · 이상길 · 김태일 · 이용찬 · 김원호

연구배경 및 목적 : 베체트병은 구강과 외음부의 궤양, 안구부 염증 등을 주증상으로 하는 증후군으로 피부, 관절, 혈관계, 신경계, 장관 등을 침범하는 전신질환이다. 한국인에서 베체트병의 장관 침범은 외국보다 높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식도 침범은 그 발생률이나 임상 양상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베체트병 환자에서 식도 침범의 유병률과 임상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본 연구는 1990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내원하여 베체트병을 진단받은 84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베체트병의 진단 기준은 Behcet Disease Research Committee of Japan(1987)을 참고하였으며, 이들의 인구학적 자료, 임상양상과 식도 침범의 유병률 및 침범 부위, 침범 양상, 치료방법, 합병증 등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 총 842명의 환자 중 상부 위장관 증상이 있어 위내시경을 시행한 환자는 129명(15.3%)이었고 이 중 129명 중 6명(4.7%)에서 식도 궤양이 발견되었다. 식도 궤양 환자의 중앙 연령은 43(32~53)세였고, 남녀비는 1:2로 여성이 많았다. 베체트병 진단 후 식도 궤양이 진단되기까지의 중앙 기간은 38.7(0~117)개월이었으며 이중 2명은 베체트병 진단시에 식도 궤양이 발견되었다. 환자들의 주증상은 3명이 상복부 통증 또는 흉통을 호소하였으며, 2명은 연하 곤란을 호소하였고, 1명은 흑혈변의 원인 감별을 위해서였다. 모든 환자들이 구강 내 궤양이 있었고, 생식기 궤양은 3명(50%)에서 발견되었고, 포도막염, 관절염 및 신경계 증상을 호소한 환자는 각 1명씩이었다. 식도 이외에 장침범이 발견된 환자는 4명(66.7%)이었다. 증상은 대부분 프로토포프억제제와 colchicine으로 조절되었으며, 한 명의 환자에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여 증상을 조절하였다. 식도에 협착이나 천공 등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 6명을 제외한 기타의 환자들 중 식도에 이상 소견이 있던 경우는 간경변과 관련된 식도정맥류 1명, 역류성 식도염 4명, 바렛식도 1명, 위식도역류증후군 1명, 식도 열공 허니아 2명이 있었다. **결론** : 한국인 베체트병 환자 중 상부 위장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비교적 흔한 편이나 실제로 식도 침범을 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내과적 치료에 대부분 잘 반응하였고 서양과는 달리 심각한 합병증 발생률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